뜨락 N

16호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신문 2020.02.06

GAFL 경기외국어고등학교
Gyeonggi Academy of Foreign Languages

발행처 :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기 획 : 지도교사 이기찬, 부장 박지원, 양세은
취 재 : 박지원, 양세은 외 11명
편 집 : 박지원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고산로 105번길30(고천동)
전화번호 : 031-361-0500
팩스번호 : 031-361-0598

GAFL, A World Class Institution

Contents

2 선생님 인터뷰
4 GVT, 싱가포르로 가즈아
5 새로워진 가익문
6 일본 불매운동
8 학생들 앙케트
10 열정 가득했던 체육대회
12 운동동아리 소개
14 다양한 학교 행사
16 사회 현상을 통해 읽는 시대의 흐름
18 선생님들 앙케트
21 시사 이슈를 보는 우리들의 눈

'친근함'의 대명사, 전성은 교장선생님을 만나다!

2004년 '명지외국어고등학교' 시기부터 '경기외국어고등학교'가 되기까지, 경기외고의 '개국공신' 선생님으로 오랜 시간 경기외고와 함께한 전성은 교장 선생님을 만나보았다. 2019년 다시 경기외고로 돌아오신 만큼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 선생님께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려보았다.

Q1: 다시 경기외고로 돌아온 소감은 어떠신가요?

A1: 경기외고는 저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여러 수학 책을 집필하고, EBS 강사 경험도 있는 유명한 수학 교사였지요. 서울 유명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하기도 하였고 많은 수입을 얻었지만, 항상 마음이 허전하고 괴로웠어요. 또 언제는 제가 수학 교사가 아닌 장사꾼이 된 느낌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때, 명지외고가 개교하면서 저를 찾아주셨고, 많은 것을 뿌리치고 이 학교를 선택했어요. 경기외고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저는 '경기외고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입학 홍보부 부장으로 있을 때에는 300여 번의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학교를 알리는 데 노력하였지요. 그 후, 48세라는 젊은 나이에 교장이라는 직책을 얻게 되었어요. 중간에 서울에 있는 자율형 사립 학교를 준비하는 일반고 교장으로 갔었는데, 그래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경기외고가 있었어요. 경기외고에서 다시 저를 불러주셨을 때 불안하기도 하였지만 바로 달려왔죠! 정말로, 경기외고는 저의 모든 것을 바친 학교예요.

Q2: 학생들에게 어떤 교장 선생님이 되고 싶으신가요?

A2: 저는 학생들과 친한 교장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학생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절하고 따뜻한 선생님이랄까요. (웃음) 예를 들자면, 학생들과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학생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학생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교복 문제 등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에는 TFT(팀을 정해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를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 있어요.

Q3: 내년에 학교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가요?

A3: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진학'이죠. 그리고 그것이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 한 명의 데이터를 놓고 15명의 선생님이 모여 학생에 맞는 진학 지도를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부족한 것을 채우고, 여러 사람이 함께 고민하며 진학의 방향을 찾는 심층 진학 지도 시스템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였어요.

또한, 저는 대학 진학 외에도 도덕적 인성 교육을 통해 인성이 바른 학생을 만들고 싶어요. 동아리 활동, 축제, 해외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여 학생들의 경험과 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교육을 위해 선생님들의 연수 기회를 다양화하기도 했어요. 특히, IB의 토론, 발표 형태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교육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여 이를 국내반에도 적용하기 위해 대부분의 선생님이 IB 워크숍을 다녀오셨어요.

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입식 형태가 아닌 IB의 스스로를 알아가는 교육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정시 확대 발표 등 변화하는 사회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우리 학교만의 교육 방식을 찾아야 할 것 같네요.

교육 방식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72단위의 외국어 교육 과정, 국민 공통 교육 과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생들이 선택하죠. 많은 선생님이 필요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긴 하지만, 학생들의 선호가 존중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4: 앞으로 경기외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4: 현 정부가 자사고, 외고를 없애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학교는 대학만 보내려고 하는 곳이 아니며, 일반 학교보다 인성 교육, 학생 자체 활동을 강화하는 학교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학교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인재는 나중에 사회에 큰 기여를 할 것이 분명해요. 경기외고의 꿈은 순수하게 어학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외국어 프로그램을 강화, 더 좋은 교육 과정을 만들어 한국을 글로벌한 사회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학생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학교 선배들을 자주 만나면서, 외고 출신인 학생들 대다수가 원하던 바를 이루며 살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특징을 잘 살려 학생에게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기에 앞으로의 경기외고는 외국어 학교의 목적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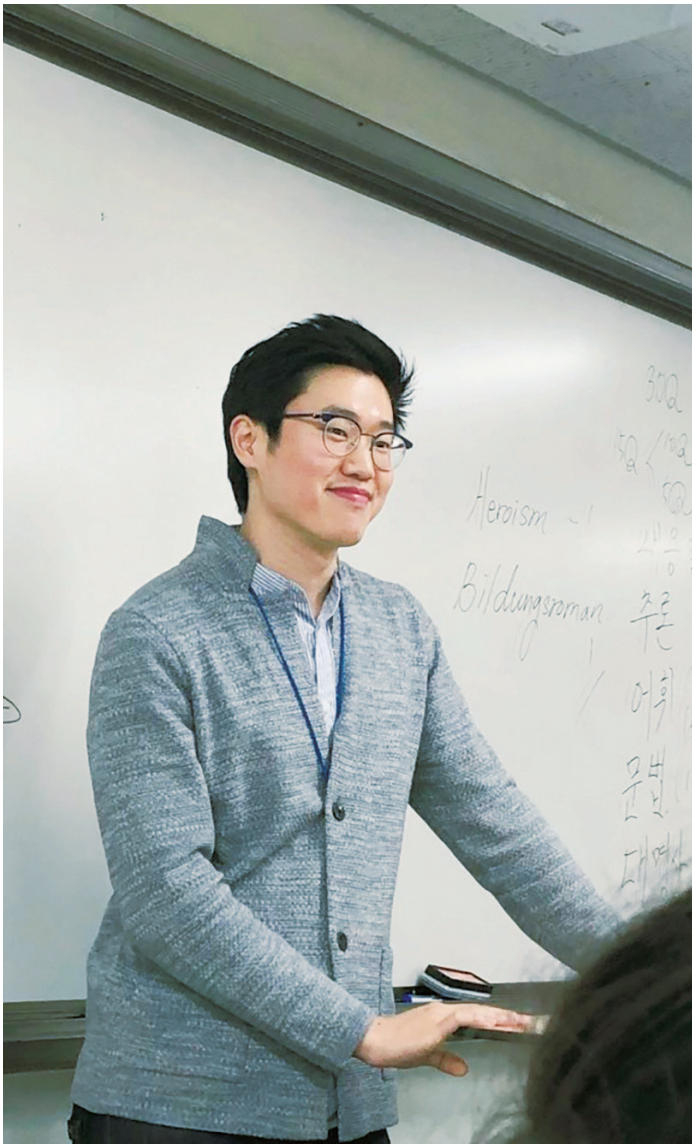
Q5: 학생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5: 가끔 학교 구석에서 슬피 우는 학생들과 만날 때가 있어요. 아마 친구 관계, 성적 문제 등의 이유일 텐데 이러한 학생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경기외고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기에 경쟁이 치열하기는 하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에 가야 인생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해나가는 것에 집중하고, 힘들어도 잘 견뎌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위치를 비관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지 고민해보고, 마음속으로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여러분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선생님과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잘 버텨주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3년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곳에서 한 일들은 분명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은 학교생활 열심히 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 양세은 기자, 박지원 기자, 이지우 기자

가플리안들의 수업 활력소, 이서원 선생님



‘항상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영화와 소설을 가지고 멋진 목소리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매력만점 꿀보이스’ 영어선생님, 이서원 선생님과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Q1. 경기외고는 어떻게 오시게 되었고, 또 얼마나 되셨나요?

A. 경기외고에 온 지는 이제 3년 되었어요. 좋은 영어교육을 고민하다가 좋은 학교에서는 어떤 영어교육을 하는지 궁금해서 오게 되었어요.

Q2. 지금까지의 수업자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자료인가요?

A. 다 기억에 남지만 ‘Into thin air’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Into thin air’는 수업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되었거든요. 이걸 한 번 가르치면 학생들이 추론을 갑자기 파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을 유도하기 좋은 지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 지문에 스펙타클하고, 재밌고, 슬픈,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선택을 했어요.

Q3. 학생들이 했던 질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거나 엉뚱했던 질문은 어떤 것인가요?

A. 제일 당황스러웠던 질문들은 사적인 질문들이었어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 당황스러운 게 가장 컸죠.

Q4. 학생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좋기로 유명하신데, 목관리는 따로 하시는 건가요?

A. 따로 관리하는 방법은 없고, 타고나야 되지 않을까요ㅎㅎ. 그리고 제가 굵은 목소리다 보니까 교실 끝까지 안 들릴 것을 생각해서 교실 끝을 포인트로 잡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울리고 널리 퍼지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발성에 있어서 이점이 되고, 좋은 목소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Q5. 앞으로의 수업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A. 매번 작품을 설정할 때 꼭 배웠으면 하는 가치 이런 걸 먼저 설정하고 작품을 선택하는 편이에요. 위기극복 세션에서는 ‘해리포터’가 있었고, 비판 의식을 심어주려고 ‘헝거게임’을 했었거든요. 다음에는, 아무래도 세상의 좋은 면들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가져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피터팬이나 오즈의 마법사 같은 작품들 아니면 해리포터의 다른 편과 같은 작품들로 해서 결말이 밝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Q6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학생들에게 한마디하신다면?

A. 일단, 영어라는 과목에 대해 미리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고, 본인이 평소에 하던 것을 이어서 한다는 느낌으로 수업에 참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범했던 사람에서 새로운 사람, 그리고 외고인으로 거듭난다는 느낌의 수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잘 화합하고 협동하고 자신의 인성을 가꾸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제가 인성보다 공부를 더 앞세워서 평가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 이준혁 기자, 박은지 기자, 민지홍 기자

GVT, 다 함께 싱가포르로 떠나자!

올해는 모든 1학년 학생들이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기존의 선택지에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로 총 3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서 학생들은 자신의 과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나라를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중국은 인원수 부족으로, 일본은 외교적인 문제로 방문이 취소되어 모든 학생들의 행선지가 싱가포르로 통일되었다. 3박 5일 동안의 일정을 학생들은 함께 보내면서 친밀감을 쌓을 수 있었고, 싱가포르의 문화를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 또한, GVT를 통해 학생들은 많은 지식을 얻으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첫째 날 화요일에 출발 예정인 일정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짐을 모두 챙기고 공항으로 떠났다. 1학년 모든 학생이 함께 가는 만큼 인원수가 많아서 인천국제 공항에서 창이 국제 공항으로 이동을 할 때 2, 6, 8반 과 1, 3, 4, 5, 7반으로 나누어서 이동하였다. 2, 6, 8반이 선발대로 먼저 출발하였고 그 뒤를 따라 1, 3, 4, 5, 7반이 후발대로 나중에 출발을 하였다. 학생들은 창이 국제 공항에 도착해서 반별 가이드 선생님을 만나고 공항을 가볍게 둘러보았다. 그 후 호텔로 이동을 하였고 방에서 쉬거나 근처 마트에 가서 맛있는 간식을 사오는 등 각자 휴식을 취하였다.

둘째 날에는 먼저 주롱새 공원에 갔다. 공원이 걸어서 보기에는 컸기 때문에 공원을 둘러볼 수 있는 트램을 탔다. 주롱새 공원에서는 다양한 새들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새와 친구들 쇼'는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쇼가 진행되었다. 다양한 새들이 만들어내는 퍼포먼스는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었다. 그 후에는 차이나타운을 방문하여 각자 자유시간을 가졌다. 차이나타운은 중국 대륙에서 싱가포르로 건너온 이주민들이 일구어 낸 삶의 터전으로 현지인들의 소박한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학생들은 각자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길거리 음식도 사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후,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에서 졸업생 선배들과의 만남을 가지며 캠퍼스를 둘러보았다. 캠퍼스가 크고 날씨가 더워서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 하기도 하였지만, 해외 대학을 경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여서 학생들은 신기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 후에는, MDIS의 강당에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와이밍찬 교수님의 특별 강연을 들었다. 강의의 주제는 싱가포르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싱가포르의 역사였다. 학생들은 강연 중간중간에 있는 퀴즈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GVT를 오기 전에 미리 공부한 싱가포르의 배경지식을 마음껏 뽐내었다. 또한, 싱가포르의 몰랐던 면도 알 수 있어서 유익했던 강의였다. 저녁이 되어 학생들은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에 가서 사진을 찍으며 자유시간을 보냈다. 식물원처럼 꾸며져 있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의 입구 쪽에서는 인공 폭포가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내며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돔 안의 시원한 온도와 아름답고 조화롭게 꾸며진 식물들을 보면서 학생들은 사진을 찍고 관람도 하는 시간을 보내고 마치 자연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관람 후, 학생들은 가든스 바이더 베이(Gardens by the Bay)의 밖으로 나와 '랩소디 쇼'를 감상하였다. '랩소디 쇼'는 슈퍼 트리로 하는 쇼로 형형색색 바뀌는 조명과 노래들의 조합이 이루어진 쇼이다. 마치 불꽃놀이처럼 빛나는 조명들은 누워서 관람하던 학생들의 감탄을 자아내었다.

셋째 날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은 대사님의 강연을 듣기 위해 다시 한번 MDIS 강당에 모이게 되었다. 평소에 외교관을 꿈꾸고 있거나 외교정치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강연이었으며, 꿈이 외교정치가 아니어도 강연을 통해 외교관과 외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얻어갈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싱가포르 국립 박물관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 박물관에서 학생들은 1시간 가량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시회를 즐기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빔 프로젝터를 통해 색감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전시회를 볼 수 있었고 싱가포르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 수 있던 시간이었다. 한 시간 가량의 자유시간을 보낸 뒤, 학생들은 시내에 위치한 호텔에서 딤섬 세트를 점심으로 먹었다. 점심을 먹은 뒤, 싱가포르의 자랑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센토사 섬으로 갔다. 센토사 섬은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펼쳐지는 섬이자, 다양한 주제로 꾸며져 있는 관광명소를 볼 수 있는 섬이다. 학생들은 루지를 타면서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루지를 탄 후에는 케이블 카를 타면서 센토사 섬을 관광하였으며, 학생들은 싱가포르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호텔로 이동을 하였다. 샹그리라 라사 센토사 리조트에서 수영장 등의 부대시설과 호텔 근처 해변을 둘러보면서 휴식시간을 가졌다. 휴식 후, 학생들은 차이나 타운으로 가서 훠궈를 먹었다. 반별로 저녁을 먹은 뒤 보낸 시간의 양은 달랐지만, 학생들은 자기 정비 시간을 통해 평소에 하고 싶었던 활동을 친구들과 하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나갔다.

마지막 날에는 학생들이 가장 기다렸던 명소인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방문하였다. 자유시간을 가지면서 학생들은 다양한 놀이기구를 타거나 다양한 쇼, 귀여운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는 기념품 샵을 가면서 시간을 보냈다.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로 구성이 된 놀이기구나 기념품을 사면서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풀었다. 스트레스를 푼 학생들은 모두 만족스럽고 기쁜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모두 유니버셜에서의 시간을 재미있게 보냈다. 학생들은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각자 유니버셜 스튜디오 안에서 점심을 해결한 뒤, 5시가 되서야 모두 유니버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본 앞에 모여서 사진을 찍으며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였다.그 후 시내에 가서 몽골리안 BBQ와 함께 싱가포르의 대표 음식인 칠리 크랩을 먹었다. 칠리 크랩의 매콤하면서 달콤한 칠리 소스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꽃게의 조화는 너무나도 훌륭하였고, 몽골리안 BBQ는 야채와 고기가 잘 어울려져서 그 풍미를 느낄 수 있었다. 처음 먹어본 음식이었지만, 모든 학생들은 맛있게 배불리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먹고 난 뒤에는 반별로 리버보트를 탑승하여 싱가포르의 마지막 밤의 야경을 보면서 싱가포르에서의 여행, GVT를 마무리 지었다.

먼저 싱가포르에 도착했었던 2, 6, 8반은 대한항공 새벽 1시 10분 비행기를 타고 먼저 한국으로 갔으며 나머지 1, 3, 4, 5, 7반은 아시아나 항공의 새벽 2시 10분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갔다. 이번 GVT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느껴졌던 3박 5일 간의 시간을 통해 졸업할 때까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또한 이번 GVT를 통해 학생들은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 GVT를 진행하며 옆에서 항상 도와주셨던 선생님들과 가이드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한다.

▶ 임지예 기자, 오수빈 기자

새로워진 GAIC- MUN!

2019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동안 경기외국어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유엔을 개최하였다.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번 가익문에 참가하였으며, 위원회는 총 6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위원회란 일반 행정과는 달리 어느 정도 독립된 분야에서 기획, 조사, 입안, 권고, 쟁송의 판단, 규칙의 제정 따위를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SC, WHO, UNODC, UNEP, ECOSOC, GA1 : DISEC으로 나뉘어졌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위원회를 2개, 중학교 위원회를 4개로 하려고 계획을 하였지만, 계획과 달리 중학생들의 많은 지원으로 인해 고등학교 위원회를 SC로 1개로 축소하였고, 중학교 위원회를 5개로 늘리게 되었다. 2019년 가익문은 6번째로 진행이 된 행사이며, 영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학생들은 모두 자신들의 영어적 소양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에 더 특별한 의미를 둔다.

가익문에 참가한 학생들은 모두 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다. 모의유엔인 가익문에서는 학생들에게 면접을 통해 다양한 직업이 부여된다. 가익문을 총괄하는 사무국, 위원회를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단, 위원회에 속하여 열띤 토론을 하는 의장과 대사들, 모의유엔에 대해 알아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교육반으로 구성이 되었다. 이번 가익문은 작년에 주최된 가익문과 달리 교육반이 새로 추가되었다. 교육반이란 모의유엔이 처음인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 가익문은 통해 모의유엔에 대한 견문과 지식을 넓혀 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새로 개설되었다. 새로 생긴 프로그램을 취재하기 위해 기자단은 교육반과 교육반에 속한 학생들을 취재하고 기사로 내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기자단은 각 위원회를 집중 취재하면서 각 위원회가 도달한 결론과 결의안을 기사로 작성하였다. 더불어, 가익문을 개최한 기간동안 일어난 행사들이나 특별한 활동들을 기록하면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기록해 나갔다. 반면, 각 위원회에서는 정해진 주제에 대해 모의유엔을 펼치면서, 뜻이 맞는 국가들과 협정을 맺어 같이 결의안을 써나가는 활동을 해나갔다. 각 교육반을 담당한 경기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은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모의유엔에 대한 수업을 만들어 나갔다.

각 위원회의 수석의장의 연설을 끝으로 가익문은 막을 내렸다. 중학생들은 방학 도중에 뜻 깊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영어실력을 늘릴 수 있을 뿐만아니라, 선배들에게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하였다. 내년을 기약하면서, 가익문은 잘 마무리되었다.

▶ 임지예 기자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모두와 함께하는 소녀상

꽃다운 나이를 잃어버린 소녀들의 아물지 못한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평화의 소녀상'.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소녀상이, 지난 8월 일본에서 개최된 예술제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다. 모든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녀상은 결국 끝까지 전시되지 못한 채 일본을 떠나야만 했다.

소녀상 전시가 예정되어 있었던 일본의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는 국제 최대의 예술제라고 일컬을 수 있을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개막식이 있었던 지난 8월 1일부터 일본의 세계 각국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었으며, 이번 전시는 그동안 일본 정부의 외압으로 전시되지 못했던 작품들을 모아 선보이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김운성, 김서경 작가의 '평화의 소녀상' 작품 역시 이 예술제에서 전시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 측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3일만에 강제 중단시켰다. 실행위원장 오무라 히데야키 아이치현 지사는 '한국 여성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는 한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일본이 받아들였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없다.' 라고 밝혔다. 아이치 트리엔날레 측에서 내세운 이러한 터무니없는 명분에 '평화의 소녀상'의 두 작가 역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두 나라 간의 외교 관계가 최근 줄타기를 하는 것 마냥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전시가 중단될 줄은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었다. 전시 중단 사태 이후로 약 1400여건의 항의 전화와 이메일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예고대로 4일부터 전시장 입구에는 가벽이 설치되었고, 입구에 배치되어 있는 경비 인력이 관광객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아사히 신문, 도쿄 신문과 같은 일본의 각종 언론에서도 정치적 외압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이번 전시 중단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전시 중단 사태는 '역사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불관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제 예술제에서 일어난 사태인 만큼 인권 의식이 없는 국가라는 인식이 전 세계에 퍼질 것'으로 우려했다. 예술제의 의의는 제작자가 자유롭게 제작하고, 감상하는 사람도 자유롭게 감상하는 것이지만, 그 작품에 대해 공감 혹은 반발을 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고 제작과 감상 사이에 서로 소통할 공간이 없다면 예술의 본질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일방적인 주장에 전 세계 예술가들과 여성주의 운동가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소녀상이 되어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SNS에 업로드해 소녀상 전시 중단의 부당함을 외쳤다. 그들은 의자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며 소녀상의 모습을 재현하였으며, 소녀상 옆에 관람객이 앉을 수 있도록 빈 의자를 설치하기도 했다. 해당 트윗에는 #평화의소녀상, #표현의부자유, #위안부, #아이치트리엔날레, #미투, #일본 등의 해쉬 태그도 등장했다. 또한 소녀상 전시 중단으로 비난을 받은 일본 국내에서도 부당함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일본 시민 단체인 '한국병합(합병) 100년 도카이 행동'은 올해 초부터 '작은 평화의 소녀상을 확산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미니어처 소녀상과 사진을 촬영하여 단체에 보냈고, 그렇게 전송된 사진들은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업로드된다. 이 단체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일본인에게 소녀상을 알리고, 잊지 말아야하는 역사에 대해 깨닫게 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집 앞에서, 여행지에서, 버스 안에서, 콘서트장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사진을 촬영해 업로드한 이들은 모두, 소녀상에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다시는 그들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얼마가 걸리든 함께 걸어가겠다는 이들의 다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울려 퍼지고 있다.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를 더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최수민 기자

일본 불매운동, 한국과 일본의 틀어진 관계

불매운동의 시작은 무엇인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 노역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청구권을 인정하여 1인당 1억 원을 기업에서 보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일본 측에서는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 청구권은 사라졌기에 한국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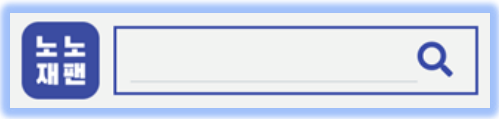
이 일을 계기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되었다. 2019년 7월 4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요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전까지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같은 품목을 수출할 때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해당 품목을 수출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가 필요해졌다. 그리고 1달 뒤인 8월 2일에는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8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였다.

'백색국가'란, '화이트 리스트'라고도 하며, 각국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로 자국 제품 수출 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개별적 심사가 필요하지만, 백색국가로 지정된다면 절차와 수속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로 우리나라는 물자 수출 시 기존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본에 의해 불허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8월 13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밝혔고 9월 18일부터 제외 조치가 시행되었다. 정부의 외교적 대응 방식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또다른 움직임이 나타났다. 바로 'NO JAPAN: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의 문구를 내세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게다가 일본 DHC테레비 방송에서의 "한국은 빨리 달아오르고 빨리 식는다."라는 '혐한' 발언은 물론, 유니클로 광고 속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의 한글 번역 '80년도 더 된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한국을 비하하고 역사적 아픔을 건드리는 일부 일본 사람과 기업의 행동은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키웠다.

불매운동의 진행과 영향

불매운동이 시작된 후, 사람들은 일본 제품을 피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9월 일본산 소비재의 수입은 약 29억 달러로 지난해 9월의 33억 달러와 비교할 때 13.8% 감소하였다. 또한, 6월과 비교한 7월의 일본산 소비재 수입은 5.8%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승용차 97.2%, 골프채 38.1%, 맥주 34.6%, 완구류, 볼펜 20% 내외, 미용기기 65.9%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일본 기업은 물론, 우리나라의 일부 기업들도 손해를 보았다. 항공과 여행 기업이 그 사례이다. 우리나라 여행객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갔지만,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이 적어지면서 항공사는 전년 대비 약 30%의 매출액 감소를 겪어야 했다. 투어 가이드를 진행하는 여행사는 더욱 손해를 보았다. 하나투어는 3분기에 매출액 1832억 원, 영업 손실 27억 원을 기록했다. 작년보다 매출액이 12.0% 줄어들었고 작년 3분기 51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은 아예 적자가 되었다. 심지어 올해 2분기에도 영업이익 36억 원이었지만, 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가 된 것은 불매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모두투어와 같은 다른 여행사들도 모두 적자를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온라인 일본 직접 구매액은 472억 원으로 637억 원이었던 지난 분기와 비교하였을 때 25.9% 감소하였다. 한편, 롯데쇼핑에서는 유니클로 국내 운영사 FRL 코리아의 실적을 제외하고 공개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유니클로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는 품절 표시가 된 상품이 있었다며 불매운동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였고, 또다른 사람들은 FRL이 포함된 기타 부문에서 6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1분기(130억 원 적자), 2분기(70억 원 적자)와 비교하였을 때 적자의 폭이 커진 것이 유니클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노노재팬(https://nonojapan.com)'이라는 사이트가 운영 중이다. 2019년 7월 11일 개설하여, 일본 제품 정보와 대체할 수 있는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노노재팬은 개설 15일만에 방문자 수 150만 명을 기록하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최상위에 오르는 등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소비자 권익포럼의 조사에서 71.7%가 불매운동이 참여하고 있으며 14.8%가 현재는 불참 중이나 향후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불매운동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보복성 제재에 불쾌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며 우리나라의 의견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출하는 방법이 불매운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소비자의 권리가 반영된 자발적 행위이고 소비자의 영향력을 통해 일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경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불매운동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 측의 사람들은 불매운동이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불매운동은 일본 제품을 생산하는 민간 기업과 일본 제품을 수입해 유통하고 판매하는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비판의 대상은 일본 정부가 되어야지 그 외의 민간인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국 방송 광고 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자 53.9%가 현 사안이 일본 특정 정당 · 정치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일반 일본인과는 무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동의하였다. 또한, 반일 감정이 심화되어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일본인 국적의 연예인과, 출장 등으로 일본에 가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행위는 불매운동이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를 해롭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불매운동이 옳고 그른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 국민이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여러 기업이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다. 일본이 한국의 흐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원하는 것을 실천해준다면,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볼 일도 없을 것이며 각국의 사람들이 반일 · 반한 감정을 키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두 나라 간의 타협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불매운동은 과거와 다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완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두 나라가 평화와 공존을 위해 경제적 · 외교적으로 노력해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 ▲ 이지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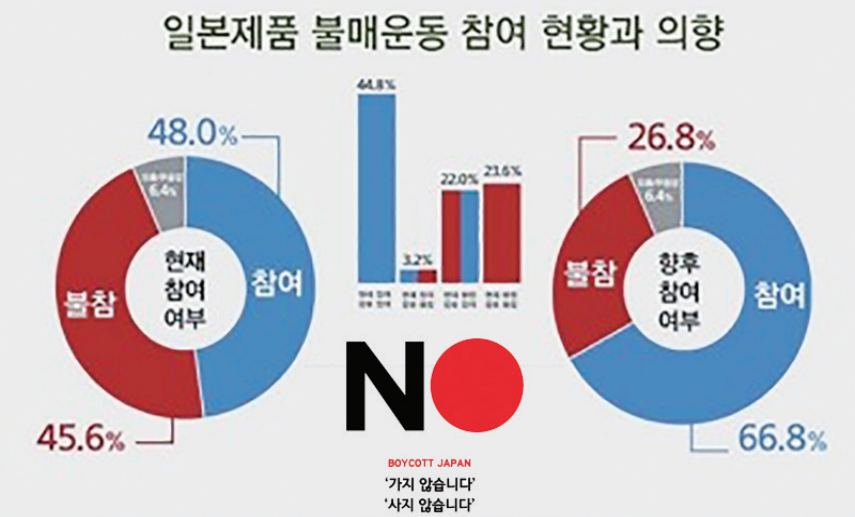
할인 앞에서는 예외였던 'No Japan' - 우리가 가야할 길

머지않은 과거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치하에서 부당하게 핍박을 받으며 뼈아픈 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한일관계가 이미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한일관계가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일본은 한일관계의 신뢰를 깨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여 우리나라로의 반도체 소재의 핵심 품목 수출을 규제하였다.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는 일본의 이런 갑작스런 경제도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었다.

일본 정부가 7월 수출규제를 발표하고 8월부터 대한민국은 대대적으로 'No Japan'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초반에 뜨거웠던 불매운동은 유니클로의 할인 행사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빨리 식어버리는 한국인의 태도에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렇듯 불매운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쯤 '유니클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광고를 공공연하게 내보내어 또다시 논란이 되었다. 광고 속에서는 손녀가 90대 할머니에게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으셨나요?'라며 묻자, 할머니가 '어머, 그렇게 오래전 일은 기억나지 않아'라고 말하며 평범하게 대화를 이어나간다. 문제는 광고속에서 '오래전'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것을 한국 자막에서만 유일하게 "80년도 더 된'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보는 각도에 따라 이와 같은 자막 번역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하필 우리나라에서만 '80년'을 언급한 것은 광고 시청자로 하여금 80년 전인 1939년, 한국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시기를 떠올리게 만든다. 이에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분노했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소비자들의 행보이다. 위안부 모독 논란이 불거진 유니클로의 광고는 중단되었지만, 할인 행사는 계속되었고, 논란이 되었던 광고가 무색하게도 일부 상품에는 '품절' 표시가 되어 있을 정도로 유니클로 제품이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 유니클로는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한 불황 속에서 매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의 방향을 바꾸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열고 있다. 불매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해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자유롭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온라인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반일 감정으로 꾸준하게 불매운동을 지속하던 사람도 십중팔구는 온라인에서의 무료 증정 행사, 반값 세일 등과 같은 유혹에 넘어가게 마련이다.

또한,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은 일본차 업체도 대폭 할인을 하는 것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했고 이로써 불매운동의 여파를 피해갈 수 있었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5개 일본 완성차 브랜드들 모두 대폭 할인을 통해 판매량이 급증했으며 무상쿠폰을 추가로 제공하거나 여러 프로모션을 실시해 19년 11월엔 A사의 차량이 불매운동 이전 수준 판매량을 회복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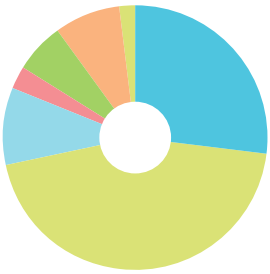
그럼 여행 업계는 불매운동의 타격을 피해갔을까? 여행 업계에서는 불매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일본 관광객이 일본 수출규제 이후인 7월부터 12월까지 방일한국인이 172만 명으로 전년 동기(352만명) 대비 51.1%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년 대비 172만 명으로 50% 이상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 말은 즉, 여전히 172만 명이나 되는 한국인이 일본땅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좌측의 그래프를 보면, 향후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의 수는 늘어났지만, 불참의 뜻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유혹적인 마케팅에 맞서 꿋꿋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듯 할인 행사에 무조건 줄부터 서는 사람, 일본행 비행기를 타는 사람, 불매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판매량 회복에 일조하는 행위를 그만두고 불매운동을 실천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씁쓸한 감정이 든다. 지워지지 않을 아픔의 역사 앞에서 한순간의 이익에 흔들리지 말고, 소소하게라도 좋으니 불매운동이 주춤해지지 않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불매운동을 실천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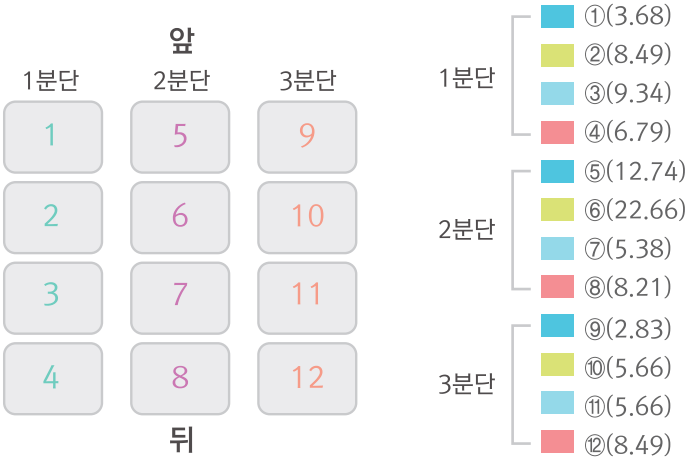
▲ 박지원 기자

가플리안 마음 속 1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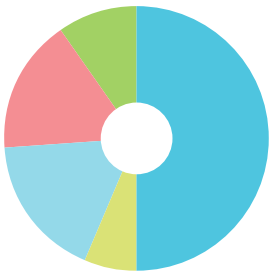
자습할 때 가장 선호하는 장소

경기외고의 자습시간, ASG시간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다. 시험기간에는 자습시간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정도로, 경기외고 학생들에게 자습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자습시간에 어디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할까?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본 결과, 자습실과 교실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복도가 3위, 기숙사가 4위, 이동 자습이 5위, 계단 자습이 6위를 차지하였다. 기타 사항으로는 비전홀 1층에 위치한 자습실, 집, 엘리베이터 옆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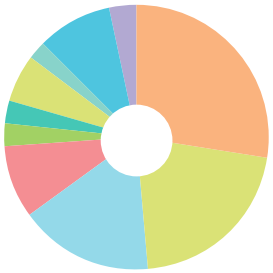
교실에서 선호하는 자리

경기외고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바로 교실이다. 학생들이 아침부터 수업을 듣고, 저녁까지 자습을 하는 장소가 교실인 만큼, 교실 자리도 학생들의 공부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가장 선호하는 자리는 어디일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자리는 2분단 두 번째 줄이다. 2위는 그 앞인 2분단 첫 번째 줄이었고, 1분단 세 번째 줄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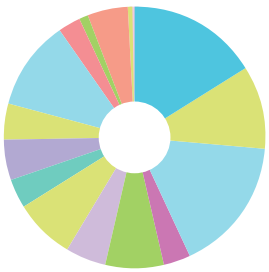
수업시간 졸릴 때, 선생님께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선생님들께서는 언제나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수업해주신다. 하지만, 이런 선생님들의 수업 시간이 졸릴 때가 종종 있다. 그럴 때는 피곤한 만큼 쉬는 시간에 잠을 청하는 것도 좋지만, 수업 시간 틈에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필요하기도 하다. 과연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언제 들어도 재미있는 선생님들의 '첫사랑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그 뒤로는 무서운 이야기, 주말 이야기, 가족 이야기가 있었다. 그 외에도 군대 이야기 등의 답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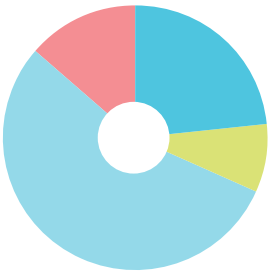
학교 카페에서 선호하는 음료

학생들부터 선생님들까지, 경기외고인 이라면 한 번쯤은 학교 카페에서 음료를 사먹어 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학교 카페의 어떤 음료를 선호할까? 학생들의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음료는 흑당 버블티였다. 그 뒤로는 요거트 버블 스무디, 초코 버블 스무디가 2, 3위를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그린티 버블 스무디와 딸기 버블 스무디 등 다양한 종류의 스무디가 학생들의 사랑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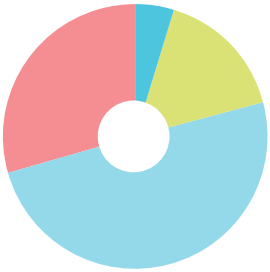
학교 매점에서 선호하는 라면은 무엇입니까?

급식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른 일 때문에 급식을 먹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학생들은 매점에서 라면을 자주 찾는다. 급식만큼이나 학생들의 배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국민 간식 라면. 과연 학생들은 어떤 라면을 가장 선호할까? 투표 결과,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라면은 불닭 볶음면과 참깨라면이었다. 그 외에도 진라면과 진짬뽕, 육개장, 열라면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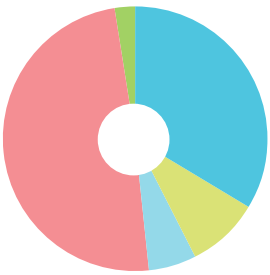
선호하는 기숙사 침대 위치

힘든 학교 일정을 소화한 후, 학생들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기숙사이다. 네 명의 룸메이트가 함께 생활하는 경기외고 기숙사. 그렇다면 A, B, C, D, 총 네 개의 침대 중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침대 위치는 어디일까? 방 안쪽 침대의 일층인 C 침대가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며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2위는 가장 바깥쪽 1층 침대인 A 침대, 3위는 C 침대 바로 위 D 침대, 4위는 B 침대가 차지하였다.



외출할 때 선호하는 요일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경기외고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 귀가일까지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학생들에게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규정은 바로 외출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외출할 때 가장 선호하는 요일은 언제일까? 한 주의 중심, 시간을 되돌리기도, 빠르게 가기를 바라기도 애매한 수요일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 1위를 차지하였다. 2위는 귀가일 하루 전인 목요일이, 3, 4위는 화요일과 월요일이 차지하였다.



샤워하는 시간대

하루 중 학생들이 기숙사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아침 시간, 저녁 시간, 모든 일과를 마친 후이다. 그 시간에 학생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샤워를 하는 등 각자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 시간을 활용해 샤워를 할까?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시 50분부터 소등되기 12시 전까지인 모든 일정을 모두 마친 '취침 준비 시간(밤)'이 1위를 차지하였다. 2위는 아침 시간, 3위는 저녁 먹기 전, 4위는 저녁 먹은 후가 차지하였다.

▲ 최서현 기자, 김해솔 기자

무더운 날씨만큼 열정 가득했던, 체육대회

체육대회라고 하면 1학기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고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는 날이다. 2019년 5월 24일 개최된 체육대회는 퍼레이드, 축구, 방어피구, 발야구, 농구, 단체 줄넘기, 전략 줄다리기, 이어달리기로 구성되었다. 체육대회에서는 다양한 색의 옷을 입은 학생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과별 티셔츠였다. 영중과는 파란색 야구 유니폼 과티, 영일과는 주황색 무도복 과티, 중어과는 실용적이고 뒷면 프린트가 된 검정색 과티, 그리고 일어과는 하얀색 축구복 과티를 준비하였다. 각 과별로 선정한 색깔로 맞춘 과티는 체육대회라는 것을 실감나게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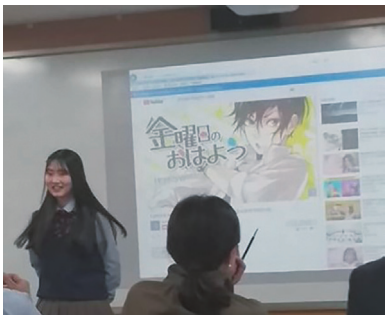
체육대회를 하기 3주 전부터 점심, 저녁, 간식시간에 걸쳐 예선이 진행되었고 예선을 통과하여 올라온 과들의 결승전이 진행되었다. 단체 줄넘기, 전략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 예선전 없이 당일에 진행되었다. 올해 체육대회의 간식거리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과 핫도그였는데 학생들은 간식을 즐기며 허기를 달랠 수 있었다. 작년 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렸던 퍼레이드는 올해 점심 이후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과티를 입고 2-3주전부터 준비한 퍼레이드와 함께 끼를 뽐내었다. 학생들이 하나로 되어 선보인 퍼레이드는 단합심과 협동심을 보여줄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 또한 다양한 경기를 보면 과별 응원가를 부르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는데 과별 응원가마다 각 과의 특색을 엿볼 수 있었다.

올해 체육대회를 진행한 제16대 학생행정위원회 이승원 학생은 "날씨 때문에 힘들었지만 친구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라고 체육대회를 마친 소감을 말했다. 또한 유비쥬 학생은 "체육대회 종목을 회의를 통해 정하고 직접 진행하다 보니 우리가 만들어가는 체육대회가 의미있다고 느꼈다."라고 말하며 뿌듯한 마음을 드러냈다. 박예원 학생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진행했던 체육대회였던 만큼 학생들이 잘 즐겨준 것 같아 뿌듯했다. 우리도 체육대회가 처음인 만큼 실수가 있었지만 선배들과 16기 행정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얻은 것이 많은 체육대회였다. 또한 체육대회가 끝나고 학생들에게 피드백 설문조사를 받아서 내년 체육대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라며 행사를 총괄한 소감을 말했다.

이번 대회 당일에는 무더운 폭염이었지만 학생들의 열정 가득한 모습은 더위를 이겨낸 것 같아 보였다. 학생들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친구들, 선배들과 함께 경기를 하며 서로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 오수빈 기자

2019 일본어 노래 부르기 대회



일본어 노래 부르기 대회가 5월 9일 목요일 다목적실1에서 개최되었다. 노래 부르기 대회는 1학년과 2학년, 3학년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일어과와 영일과에 한정되지 않고 영중과와 중어과 학생들까지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자신의 전공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을 통해 학생들이 외국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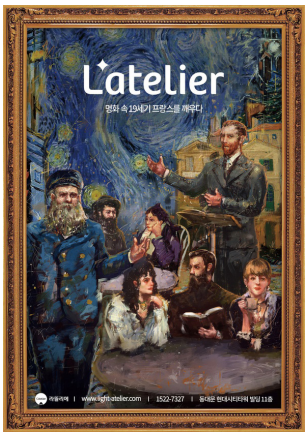
학생들은 일본 애니매이션 주제곡, K-POP 일본어 버전 노래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부르고 노래와 더불어 준비한 춤을 선보이는 학생들도 있었다. 학생들의 재미있고 귀여운 춤은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고 의외의 노래 실력을 가진 학생들을 보고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다.

1학년 대상은 장민주 학생, 금상은 이정은 학생이었고, 2학년 대상은 문수지 학생과 이유진 학생, 금상은 이하랑 학생과 안세진 학생, 우선하 학생이었다. 또한 3학년 대상은 박희영 학생, 장윤영 학생, 정한희 학생, 금상은 양현지 학생, 이예진 학생, 최현서 학생이었다. 1학년 대상 수상자 학생이 준비한 곡은 '금요일의 아침인사'였고 2학년 대상 수상자 학생들이 준비한 곡은 뮤지컬 위키드의 'popular'라는 곡이었다.

1학년 대상 수상자 장민주 학생은 "중학교때 친구들 사이에서 '금요일의 아침인사'라는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노래 경연대회에서 많은 노래들 중에서도 친숙한 이 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대회 당시에는 많이 떨려서 실수도 있었지만 친구들의 격려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받은 첫 상이어서 너무 감격스럽기도 했고 뿌듯했습니다. 그 날 격려해준 친구들에게 고맙고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며 소감을 표했다.

일본어는 일본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고 일본어 노래 또한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과에 상관없이 다양한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대회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다목적실1에 오면 누구나 대회를 볼 수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즐길 수 있었던 축제같은 대회였다. 많은 학생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일본어를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동안 배워온 일본어 실력을 마음 껏 뽐낼 수 있던 자리였다.

▲ 오수빈 기자



Pride of Korea, 라뜰리에, 롯데월드로

경기외고 학생이라면 매년, 매 학기 시험이 끝난 1주일 후에 'Pride of Korea'를 간다. Pride of Korea는 학생들 사이에서 'PK'라 불리며 다른 학교에서는 이를 '현장체험학습'이라고 칭한다. 경기외고의 현장체험학습인 Pride of Korea(이하 PK)는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 휴식처 같은 역할을 해주며, 학생들은 시험이 끝난 기쁜 마음과 PK를 향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현장체험학습을 간다. 이번 15기의 2학년 PK는 1학기 장소는 라뜰리에, 2학기 장소는 롯데월드였다.

2019년 5월 10일, 1학기 PK로 선정된 장소는 '라뜰리에'였다. 라뜰리에는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에 위치해 있는 미술전시회로 19세기 프랑스 화가들의 그림 속 예술을 구경할 수 있는 장소이다. 라뜰리에 내부에는 미술 전시뿐만 아니라, 빈센트 반고흐의 일생을 담은 뮤지컬, 명화 속을 그대로 표현해 내어 명화 속으로 들어가볼 수 있는 체험, 19세기 프랑스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카페와 우체국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학생들은 곧바로 라뜰리에에 도착해 각자 자유롭게 관람하였고, 각자 사진촬영을 하고 라뜰리에 속의 예술을 체험해가며 미술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같은 해 10월 11일, 경기외고 2학년 학생들은 2학기 PK장소로 롯데월드를 갔다. 롯데월드는 학업 스트레스와 시험에 대한 걱정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장소로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기 전부터 기대하던 PK장소였다. 이번 PK에는 놀이공원이라는 장소에 걸맞게 교복을 입고 가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롯데월드에 도착한 학생들은 담임선생님께 표를 받자마자 자신이 원하는 놀이기구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며 설레는 마음을 표출했다. 중국어과 6반의 담임 김철환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숨어 노는지 한 명 만날 수가 없구나'라며 인증샷 좀 보내달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해당 반 학생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셨다. PK에서 15기 학생들은 교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잊지못할 행복을 가지고 돌아왔다. 학생들은 경기외고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더할 수 있었다.

▲ 원예린 기자

학업에 지친 가플리안들의 활력소, 운동동아리!

열정과 노력으로 뭉친 라크로스

Q1. 라크로스는 어떤 운동인가요?

A. 라크로스는 캐나다에서 유래되었어요. 간단하게는 공을 가지고 하는 아이스 하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팀워크를 이용해 공을 골대에 넣는 기본적인 스포츠이지만, 운동장에서 공을 던지며 하기 때문에 체력소모가 많을 수 있는 운동이에요.

Q2. 다른 운동동아리에 비해 대회 참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로 인해 어떤 점이 힘들었나요?

A. 저희가 1년에 최소한 3번은 대회에 참가하는데 아무래도 각 특목고가 모여 하는 대회라서 그런지, 라이벌의식이 있어서 조금 격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라크로스라는 운동 자체가 몸을 많이 쓰는 운동이기도 하고 채를 이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해서 하다보면 다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많이 다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다치지 않아요. 아무래도 가장 큰 단점은 체력소모가 심하다는 거예요. 풀경기를 뛰다 보면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몸을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플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회참가를 위해서는 장비도 필요한데, 라크로스가 한국에서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장비를 해외에서 구매해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요.

Q3. 이렇게 대회가 잦은 만큼 연습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라크로스만의 단합력을 위한 방법이 있나요?

A. 저희는 매주 월, 수 ASG 4에 모여서 밤 11시까지 훈련을 하기 때문에 서로 안 친해지고 싶어도 저절로 친해지게 되는 동아리예요. 기본 훈련시간뿐만 아니라 점심이나 저녁시간, 체육시간에도 모여서도 따로 라크로스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통해 라크로스에 대해 알아가면서도 서로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Q4. 라크로스가 워낙 특이한 종목이라서 경험이 없는 부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처음 연습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A. 처음에 들어오면, 공을 받거나 패스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서 바로 경기를 뛰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년 먼저 들어온 선배들이 한 명씩 각자 가르쳐주면서 일주일 정도는 패스 등의 기본기를 배우기 때문에, 경험이 없더라도 도전해서 어떤 운동인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라크로스에 대해 모른다고 해서 시도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약간의 운동신경만 있다면 1-2주 연습으로도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번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Q5. 말씀하신대로 라크로스가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운동인데 그렇다면 라크로스만의 장점과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A. 장점은 흔치 않은, 독특한 스포츠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라크로스를 추천해요. 그리고 팀워크가 진짜 많이 필요한 운동이기도 하고 회식이 많기 때문에 팀원들끼리 쉽게 친해질 수 있다는 것과 훈련이 재밌다는 것도 장점이죠. 그리고 라크로스만의 바람막이와 야잠이 예쁘고 회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친목을 원한다면 라크로스를 해보길 바랍니다.

Q6. 라크로스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A. 라크로스는 '열정'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라크로스를 연습하고, 대회에 참가할 때도 1위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요. 물론 우승을 하지 못했더라도 함께했다는 점에서 항상 뿌듯해 합니다.

▲ 이준혁 기자, 박은지 기자, 민지홍 기자

단합과 성장의 아이콘, 홉스타즈

Q1. 정기적인 연습시간은 언제이며, 주로 어떤 연습을 하시나요?

A. 저희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5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10분동안 연습을 진행해요. 30분 정도는 농구 수업으로 레이업볼이나 자유투같은 슛 자세를 먼저 잡는 연습을 하고 나머지는 팀별로 나눠서 경기를 하는게 가장 주된 연습내용이에요. 대회참가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방학이나 학기 중을 이용해서 대회 연습을 하고 있어요.

Q2. 이번에 전국 특목고 연합 농구대회에 참가하셨다고 들었어요. 대회 만족도와 더불어 이후 홉스타즈 활동에 변화된 점이 있나요?

A. 저희가 이번에 외대부고가 개최하는 전국 특목고 연합 농구대회에 참가했어요. 만족도는 매우 높았어요. 다른 외고 학생들과 만나서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컸고, 다른 학생들과 몸을 맞대며 활동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어서라고 생각해요. 대회 이후 달라진 점은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점이에요. 경기를 뛰는 중간에는 쉴 수 있는 타임이 없기 때문에 호흡같은 부분에서는 선수들 모두 기량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다른 학교 학생들은 저희 학교에 비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형태에서 전문적으로 배우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를 하면서 저희의 취약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코치님 없이 저희끼리 전략을 구상해야 해서, 이런 면에서도 시각이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Q3. 다른 스포츠가 아닌 농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사실 우리학교에 운동동아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특히 여자 운동부는 라크로스와 농구부밖에 없잖아요. 체육을 좋아하기도 했고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많이 봐서, 농구를 하는 선배들이 멋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된 이유는 공부만 하다보면 지치거나 땀을 뺄 수 있는 시간이 체육시간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ASG 시간에 운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Q4. 홉스타즈만의 단합력을 위한 방법이 있나요?

A. 이런 비유가 적절하지는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힘든 활동을 하면 동기애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대회에 나가는 인원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끼리 뭉쳐야되고, 저희끼리 패스가 잘 되고 말이 잘 통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서로 서로 말 없이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각자의 머릿속에 깊게 박힌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 단합력이라고 말하긴 부끄럽지만 홉스타즈가 외치는 구호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많이 힘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Q5. 홉스타즈를 어떤 학생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A. 가장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운동해서 체력을 기르고 땀을 빼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운동이 거의 없고, 친구들끼리 자체적으로 하는 운동은 더욱 없다고 생각해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걸 하고 싶다면 저희 동아리에 꼭 와줬으면 좋겠어요.

Q6. 홉스타즈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A. '단합'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연습 경기를 비롯한 매 경기에서 팀이 새롭게, 무작위로 팀이 꾸려지거든요. 각기 다른 드리블이나 슛 스타일을 통일시킬 수 있는 각 팀원들의 지휘력과 단합력을 농구가 이끌어낸다고 생각해요.

▲ 이준혁 기자, 박은지 기자, 민지홍 기자

체육대회 종목, 과연 이대로 안전한가?

2019년 5월 24일, 가플리언들이 가장 기대하는 교내 행사 중 하나인 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 예선 경기부터 퍼레이드 연습까지 모두 협력하여 준비했던 체육대회였기에 그만큼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행사였음은 틀림없을 것이다. 이번 체육대회는 발야구, 농구, 축구, 방어피구, 전략 줄다리기, 8자 줄넘기, 퍼레이드 등과 같은 학생들이 기대했던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종목 중 하나인 '전략 줄다리기'는 과연,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종목일까?

체육대회는 과격하고 활동적인 운동을 해야 하는 날인만큼 부상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는 행사이다. 체육대회 중 넘어지거나 공에 맞아 부상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전략 줄다리기'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 안전성이 더더욱 떨어지는 종목이다.

전략 줄다리기는 양 팀이 운동장 한가운데에 놓인 줄 5개를 서로 끌어당겨 더 많은 줄을 자신의 편으로 옮긴 팀이 승리하는 종목이다. 종목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힘뿐만 아니라 전략과 협동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줄을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다치거나 부상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기존의 줄다리기는 줄 하나를 양쪽에서 서로 당기기 때문에 전략 줄다리기보다는 부상률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전략 줄다리기는 줄이 놓인 운동장 중앙까지 달려가 줄을 잡고 당겨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줄다리기와 차이가 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밀치고 밟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할 수 있었으며, 여러 명이 깔려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심지어 줄이 목에 감기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승부가 눈앞에 놓인 결정적인 상황이었기에, 다른 학생들이 부상을 입거나 다친 학생들을 미처 보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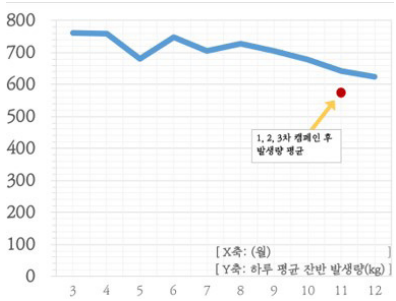
체육대회는 매일 책상에 앉은 채 정해진 틀에 박혀 살아가는 학생들이 활동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이다. 또한,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준비한다는 점에서 협동심과 스포츠맨십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체육대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이다. 학생들은 항상 학교에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는,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받는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귀에 익숙하기에 무뎌진 것 또한 안전이다. 우리가 참여하는 체육대회의 종목들이, 즐거움이라는 목적의 기반이 되어주는 '안전성'을 토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최수민 기자

너도 오늘 안 남겼지? 야 나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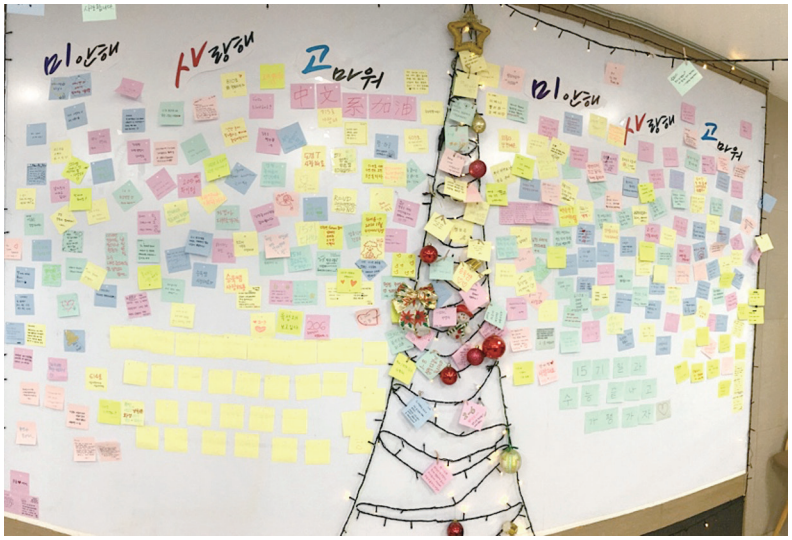
그동안 급식 잔반을 줄이기 위한 '피켓 캠페인'은 종종 있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의 캠페인만으로는 학교 급식 잔반 처리 비용을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피켓을 들고 열심히 구호를 외친다 해도 사실상 급식을 남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어려워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농업기반 환경동아리인 취여란과 급식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의 캠페인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바로 경쟁구도를 통한 '참여형' 캠페인이었다. 11월 6일, 13일, 20일 총 3 번에 걸쳐 취여란 부원들은 퇴식구 쪽에 서서 급식을 남김없이 먹은 사람들의 잔반을 확인한 후에 스티커를 하나씩 배부하였고, 스티커를 전달받은 학생들은 스티커판에 스티커를 붙였다. 총 세 번의 캠페인에서 스티커를 가장 많이 모은 1학년 3반과 2학년 2반은 간단한 간식을 지급받았으며, 이때 공정성을 위해 각반이 모은 스티커의 개수는 각반의 인원수 대비 비율을 고려하였다. 반 대항전에서 1학년은 3반이 73%로 1등, 2학년은 2반이 76%로 1등을 차지하였다. 1등을 한 반의 학생들은 11월 29일 금요일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학번과 이름 말하고 상품으로 치킨을 지급받았다.

잔반 처리 비용이 높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 캠페인은 그 취지에 맞게 잔반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1, 2, 3차 캠페인 후 잔반 발생량은 하루 평균 약 574.6kg으로, 2019년 하루 평균 잔반 발생량의 최고치보다 24.57% 감소한 수치이다. 반 대항전이라는 경쟁구도가 학생들의 승부욕을 불러일으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결과인 것이다. 실제로 영양사 선생님들은 캠페인 이후로 잔반이 크게 줄었다며, 이번에 진행된 색다른 캠페인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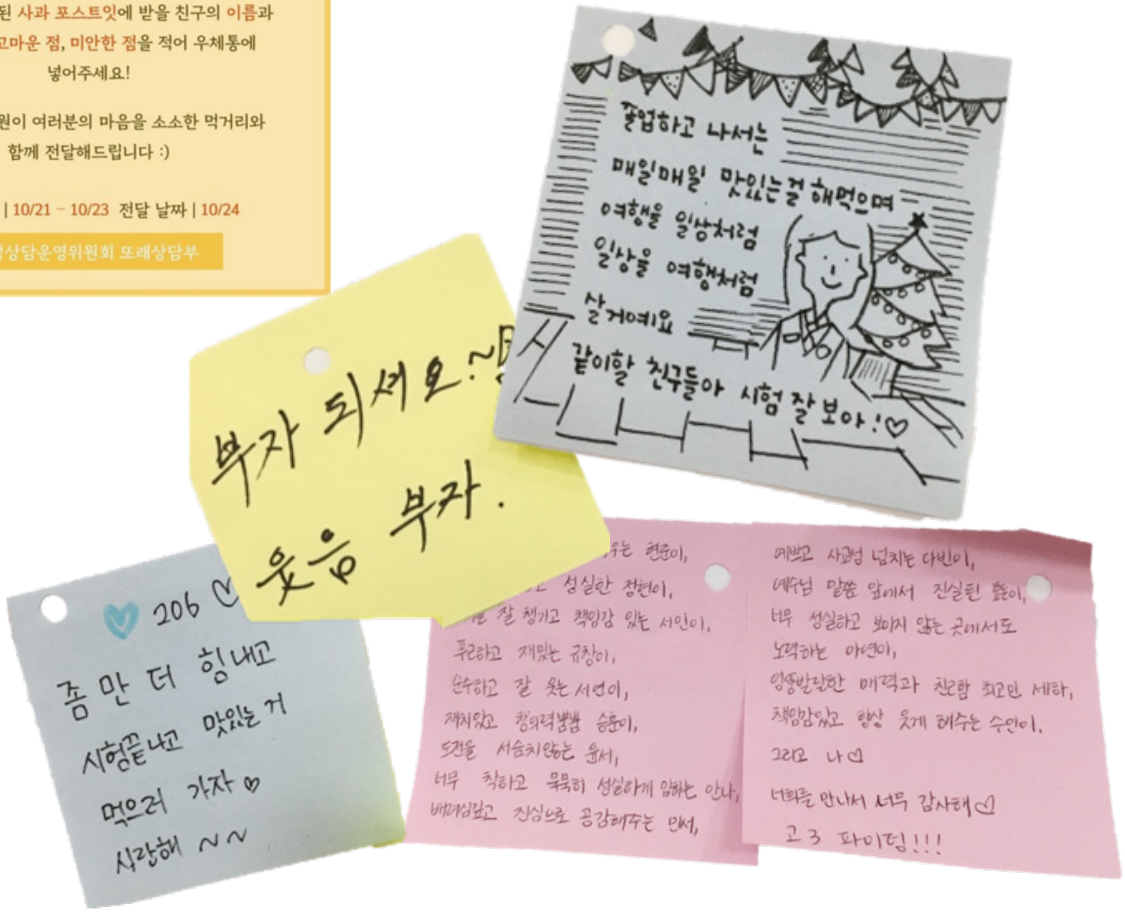
▲ 박지원 기자

마음을 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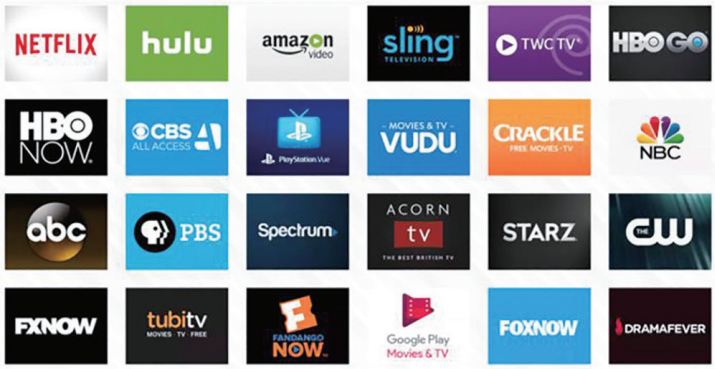
경기외고의 특징 중 하나는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대부분을 친구들과 함께 보낸다는 점이다. 그러나 익숙하지만 값지고 따뜻한 말들은,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더 꺼내기 어렵거나 진실하게 전하지 못하거나 무심코 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번 겨울,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에 경기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소중한 행사가 열렸다.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와 같은 말들은 정말 평범하지만, 전부 보석만큼 빛나고 가치 있는 말들이다. 따라서 이 행사는 이러한 고백들을 말하는 순간, 평범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본관 2층 그린코너에서 진행되었다. 2019년이 지나가기 전, 가슴 속에만 담아두고 전하지 못한 말을 포스트잇 메시지를 이용해 전달하자는 행사에 경기외고 학생들은 수많은 포스트잇을 그린코너의 벽에 붙이며 열렬한 참여를 보여주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시험', '졸업' 등의 주제를 담은 글이 가장 많았고, 포스트잇을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같은 반이나 룸메이트 친구에게 쓴 글이 가장 많았다. 덕분에 학생들의 따스한 마음이 담긴 포스트잇으로 이루어진 크리스마스트리가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장식들보다도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아주 따스한 연말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이번 '"미사고" 마음 전하기 행사'를 기획, 진행한 학생상담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에 '사과데이-내 마음이 들리니?'라는 주제로 '사과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각 층에 배부한 사과 모양 포스트잇에 친구에게 고마운 점, 미안한 점을 적어 우체통에 넣으면 또래상담위원이 사과 주스, 사과 파이 등 사과와 관련된 소소한 먹거리와 함께 그 마음을 해당 친구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이었으며 10월 21일부터 23일에 걸쳐 3일 동안 편지를 모았고, 사과의 날인 24일에 편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 양세은 기자

어떤 플랫폼에 탑승하시겠습니까



올해 초 발표된 한국의 넷플릭스 가입자 현황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예측했던 수를 훌쩍 넘은 것은 물론이고 실상은 그 10배가 넘는 가입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미디어, 맞춤형 비디오, dvd 대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미국의 다국적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그 이름부터 인터넷을 뜻하는 'Net'과 영화를 뜻하는 'flicks'의 합성어인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 약 5700만의 가입자 중 약 1800만 명이 해외 구독자일 정도로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서비스'라는 명실상부한 수식어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OTT(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시장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지상파 3사와 옥수수의 통합 OTT 플랫폼 '웨이브(WAVVE)'가 출범했고, 다음날인 17일에는 CJ ENM과 JTBC가 합작법인 출범을 위한 MOU(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하는 문서)를 체결했다. 이러한 변화는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빠르고 다양하게 발전하는 방송과 영상 사업과 발맞춰 걸어가기 위해 등장했다. 이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콘텐츠의 생산과 그를 적절히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이다. 성공적인 국내 플랫폼 예시 중 하나인 "웨이브"는 1천 4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기존 옥수수 가입자 1천만 명, 푹 가입자 400만 명)함으로써 유료 구독형 OTT 시장의 최대 점유율인 44.7%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 웨이브는 '하우스 오브 카드' 등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의 성공 사례와 같이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을 통해 2023년 말 유료가입자 500만 명, 연 매출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 다른 예시인 "CJ ENM 티빙(TVING)" 역시 변화에 물결에 플랫폼 전면 개편이라는 깃발을 꺼내 맞서고 있다. 티빙은 이미 광범위한 콘텐츠 확장과 함께 업그레이드된 사용 환경(UI·UX)을 구축했다. 우선 방송 중심의 서비스에서 영화, 키즈, 커머스 등의 분야를 시작으로 음악과 뷰티, 패션 등 스타일 콘텐츠까지 차차 장르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끝없이 성장세를 달릴 것 같던 넷플릭스는 최근 2분기에 부진한 성적표를 보여줬다. 이는 '비교적 싼 가격에 높은 만족도로 여러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라는 특징을 버리고 선택한, 요금 인상의 여파이다. 넷플릭스의 추락으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플랫폼 시장의 왕관을 둘러싸고 앞으로 벌어질 전쟁의 결과가 몹시 흥미롭다.

▲ 양세은 기자

돈만 내면 인기 유튜버?

각자 가진 노하우나 개성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 공유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어엿한 직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수입면에서도 독보적이다. 최근 어린이 크리에이터의 가족 회사가 95억원 짜리 빌딩을 구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잘나가는 유튜버 수입이 톱스타 연예인 못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 탓에 대한민국은 남녀노소 '유튜브 열풍'에 휩싸였다. 2018년 진행한 한 설문조사에서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초등학생 장래 희망 순위 5위일 정도이다.

돈만 내면 인기 유튜버?

유튜브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한켠에 짙은 그늘이 있다. 이른바 '하꼬' 유투버가 대표적이다. '하꼬'는 판잣집을 속되게 이른 '하꼬방'에서 유래했다. 규모가 매우 작은 유튜브 채널이나 크리에이터를 가리킨다. '하꼬' 유튜버가 열심히 만든 동영상은 영향력이 큰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소리소문 없이 묻히게 된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유튜브라고 하지만 정작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공간이 된 것이다.

이러한 '하꼬' 유튜버들을 겨냥해서 구독자나 조회수를 허위로 늘리는 '유튜브 조작 시장'이 생겼다. 유튜브 구독자와 조회수 등을 전문적으로 조작하는 업체는 100곳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시세는 대략 조회수 1000회에 약 1만원, 구독자 100명당 약 1만원 정도이다. 한 유튜브 조작 업체 직원은 "고객 문의가 하루 평균 20건 정도 들어오고 월 매출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영업이 잘 될 때는 1000만원 이상 번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유튜브는 비정상적으로 조회수가 늘어난 유튜브를 적발해 제재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며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 없는 공짜 유튜브?

모든 연령층이 즐겨 사용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려면 콘텐츠 시작 전 5초가량의 광고를 봐야한다. 광고 없이 보려면 월정액 요금을 내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 없이 혜택을 누리는 앱이 등장했다. 바로 유튜브 밴스드이다.

유튜브 밴스드를 통해서 일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일부 누릴 수 있다. 먼저 '애드 블록'기술로, 광고를 차단해주는 기술이다. 이 밖에도 폰 화면이 꺼져도 영상이 계속 재생되는 '백그라운드 플레이백'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가입하여 매월 7900원을 지불하는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유튜브 밴스드의 적법성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튜브 측은 유튜브 밴스드가 '불법 도용프로그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국내외 판례에서는 광고를 차단해주는 '애드블록' 서비스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때문인지 밴스드 앱을 차단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시청하는 경우 접속을 막는 등의 조치를 하지는 않고 있다.

▲ 최서현 기자

패스트트랙 제도, 폐지만이 답일까?

올해 8월, 패스트트랙 폐지가 큰 화두가 되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으로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한다. 이는 2015년 5월, 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국회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또는 본회의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일로부터 최대 330일이 지난 뒤 본 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또, 이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 대상이 되는 법안은 크게 3가지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있다. 그렇다면 긴급하고 중요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왜 폐지를 하려는 것일까?

패스트트랙 반대 측의 의견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의장실을 점거하고 있는 당이 여러 절차를 무시하고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필요한데,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이러한 절차들을 모두 무시할 수 있다. 절차상 패스트트랙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최대 330일 내로 처리되지 않을 시 자동으로 본 회의에 상정됨으로써 악용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패스트트랙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려는 공수처법과 선거법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의 문제이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인 공수처 설치에 대한 법이다. 그러나 공수처의 공수처장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야당 인사나 사법부 검판경을 마음대로 수사, 기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법부를 제압할 수 있고 삼권분립이 무너지며 독재가 가능하다는 것이 반대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찬성 측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들이 수사대상이 될 것을 염려하여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 많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선거법개정안은 투표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50퍼센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함으로써 각 정당의 지지율에 맞게 비례대표를 나누자는 법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로는 지역구에서는 해당 구에서는 가장 많이 득표한 1명이 선출되며, 비례대표는 지역구와는 독립적으로 채택하였다. 또, 현재의 대표제에서는 지역구에서 뽑은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그 후보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제 개편안에서는 이런 표도 사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 정당의 득표율이 20%이고, 지역구에서 40석을 얻었다고 하자.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20%인 60석을 얻어야 하는데 20석 적은 40석을 지역구에서 확보한 상황이다. 만약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면 모자란 20석을 비례대표제로 얻을 수 있었으나, 50% 연동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절반인 10석만을 추가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 또한 찬성 측은 소수정당에도 기회가 주어지기에 좋은 취지의 법안이라고 했으나 반대 측에서는 소수정당들이 여당과 합심하여 뜻을 담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패스트트랙의 취지는 중요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일부 반대 세력에 의해 패스트트랙의 미흡한 부분들이 속속들이 밝혀지며 이에 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찬성 측의 사람들은 패스트트랙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애쓰고 반대 세력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며, 반대 세력은 패스트트랙을 폐지하려는 주장만을 내세우기보다는 허점에 대한 해결책을 통해 모두에게 득이 되는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박은지 기자

안전 불감증, 익숙해지기 전에 조심하자

지난 8월, 대구의 한 놀이공원에서는 24세 아르바이트생의 한쪽 다리가 롤러코스터 레일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은 오른쪽 다리의 절반쯤을 절단당하고, 약 10m 아래로 추락하였다. 해당 놀이공원에서는 이번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2018년 9월 한 놀이기구의 안전 센서가, 날아오는 낙엽에 반응하여 운행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해 8월에는 케이블카의 안전 센서가 빗물에 반응하여 케이블카 세 대가 25분가량 멈추는 일도 있었다. 2017년 6월에는 3~5살의 어린이들이 탑승한 어린이 놀이기구가 운행 중 오작동으로 인해 지상 8m의 높이에서 약 20분 동안 매달려 있어 어린이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위 놀이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놀이공원에서도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해당 놀이공원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방문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어사전에서는 '안전 불감증'을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둔하거나 안전에 익숙해져서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 하는 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신경 쓰지 않다가, 최소화할 수 있었던 일을 크게 키우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나타난다.

2014년 4월, 300여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 또한 무리하게 선박을 증축한 해운업체와 관리를 소홀히 한 경찰공무원의 안전 불감증에서 시작된 비극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많은 국민에게 슬픔을 주었던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를 비롯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 불감증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안전 불감증은 익숙해진 안전으로 인해 사고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 해결을 위해서는 안전사고가 여러 차례 일어난 장소에 대한 주의와 함께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구의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의 부상,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과 같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인 경우가 다수이다. 그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 우리가 놓치고 있던 안전 수칙을 고치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잊고 있던 안전 수칙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건 어떨까?

▲ 김해솔 기자

선생님들의 이야기♥

Q. 수업 중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 입니까?

- 수업에 집중할 때
- '선생님이 좋아요'라고 할 때
- 정말 좋은 질문을 해줄 때
- 학생들이 밝은 표정으로 웃을 때
- 학생들이 열심히 들어주고 피드백 줄 때
- 학생들이 교사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 학생들이 깨달음을 얻은 표정을 지을 때
- 준비한 수업이 예상보다 좋은 호응을 이끌어 낼 때
- 학생들이 모둠활동을 하며 즐거워 할 때
- 새로운 정보, 경험이 전해져서 학생들이 좋은 반응을 보일 때
- 모든 학생들이 반짝반짝한 눈으로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 수업주제와 관련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Q. 수업 중 가장 기운이 빠질 때는 언제 입니까?

- 리액션이 없을 때
- 학생들이 기운 빠졌을 때
- 학생들이 자거나 졸 때
- 물었던 질문 또 질문할 때
- '공부하기 싫어요'라고 말할 때
- '재미없다'라는 투정을 들을 때
- 수업에 자거나 다른 짓을 할 때
- 수행평가 있는 날 피곤한 모습이 역력할 때
-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스마트기기만 할 때
- 학생들이 다른 공부를 하느라 내 수업을 안 들을 때
- 중요하지 않은 교과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아이들을 볼 때
- 이전 시간에 수행평가나 과제 관련 안내를 했는데, 들은 적 없다고 발뺌할 때
- 학생들이 선생님 이야기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거나 다른 곳에 관심을 둘 때

Q. 1년 중 가장 힘든 시기는 언제 입니까?

- 추운 겨울
- 학생들의 사건 및 사고를 접할 때
- 시험출제 기간과 검토 기간
-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학기 초
- 생기부를 기록하고 마감할 때
- 제일 정신 없는 수시원서 접수 기간
- 5월에서 6월 더운 여름 시즌
- 학생들이 의욕이 없는 2학기 PK 다녀온 이후
- 평가기간 전후로 스트레스가 최고조인 기간
- 1학기 말, 2학기 초 계절의 변화가 학생들의 기분을 좌우할 때

Q. 경기외고에 근무하면서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 삼시세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 다양한 수업의 기회(ASG, 교양)
- 학생들이 모든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것
- 우수한 학생들과 여러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점
-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오래오래 볼 수 있다는 점
- 학생들이 자신의 책임 하에 교사와 수평적 분위기를 이끄는 것
- 열심히 하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
- 학습의욕이 있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이 모여 화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
-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매순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
- 훌륭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Q.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 졸업한 제자들이 찾아올 때
-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시작할 때
- 제자의 훌륭한 성장을 볼 때
- 장성한 제자들과 옛 추억을 나눌 때
- 수업을 통해 뭔가 배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 학생들과 함께하며 즐거움이 느껴질 때
- 학생들을 보는 순간들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때
- 선생님으로 인해 인성 혹은 성적 혹은 마음가짐이 변화된 학생들을 볼 때
- 학생들과 울고 웃으며 떠드는 순간, 진솔하게 고민을 이야기 하는 순간

Q. 학생들이 힘들어 보일 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 시간이 네 편이 되게 만들렴!
- 이 또한 지나가리라.
- 넌 누구보다 잘하고 있어.
- 그래도 너희들이 부럽다.
- 늘 항상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 힘내라 힘! 인생의 길이 평탄한 길만 있는게 아니란다.
- 말 보다는 등을 두드려 주고 싶음. "아, 함께 가자. 이 길을.."
- 너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마.
- 지금 지치는 건 한 순간이지만 이 순간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말아라.
- 1년 전 오늘 했던 고민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이 고민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 수 있을 거야.
- 좋았으면 추억이고 나빴으면 경험이니 지금의 힘든 상황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과정의 일부이다.
- 괜찮니? 힘들지…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또 잘 이겨낼 거야. 네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잘 해내온 네 자신을 믿으렴. 파이팅!
- 선생님도 요즘 시도해 보고 있는 것으로, 힘든 마음을 글로 써보는 것이다. 그러면 혼란스러운 마음이 가라앉고 현실을 직시하며, 건강한 대응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글조차 쓸 힘도 없다면 울 곳(노래방, 화장실, 이불 속, 외진 곳)을 찾아가 마음껏 울어라! 통곡하라!
- 네가 지금을 견디고 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해! 힘내~!!

▲ 최서현 기자, 김해솔 기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올해도 어김 없이 경기외고 학생들은 1년 동안 함께 할 선생님들을 위한 첫 이벤트를 들뜬 마음으로 준비하였다.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은 물론이고, 사서 선생님, 사감선생님, 영양사선생님, 보건선생님 등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께 롤링페이퍼를 작성하고 전달하였다.

조례시간과 종례시간을 이용하여 진행 된 스승의 날 행사를 위해 학생들은 일찍 모여 풍선을 불고, 노래를 부르는 등 각 반 마다 각양각색의 이벤트가 눈에 띄었다.

한 달간 함께했던 교생선생님과의 추억도 특별했다. ASG시간을 이용하여 경기외고 선배이신 교생선생님으로부터 학창시절에 대한 의미 있는 조언과, 성적고민, 친구고민까지,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교생 선생님들과의 수업을 통해서 친분도 쌓고,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었다. 반 학생들은 담임선생님과 더불어 반을 아껴주신 교생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함을 표했다. 종례시간을 이용하여 진행된 이벤트에 한 선생님께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셨다.

스승의 날은 학생들에게는 선생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던 기회로, 선생님들께는 학생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가플리언들이 앞으로도 선생님들과의 따뜻한 정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 이지윤 기자

2019년 홍콩의 민주주의는 거꾸로 간다

2019년 홍콩의 민주주의는 거꾸로 가고 있다. 2018년 2월 17일, 20세 홍콩인 남성이 대만 타이베이 여관에서 여자친구를 살인을 한 사건이 있었다. 남자는 홍콩에서 체포됐고, 대만은 홍콩에게 자국 영토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남자의 신변을 요구했다. 이에 홍콩의 친중 정권이 이 대만 사건을 빌미로 범죄인인도 관련 개정안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반면 대만은 "범죄자를 받지 않겠다. 나라의 주권을 없애려는 의도에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콩의 친중 정권은 대만의 입장을 무시하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래서 2019년 6월 9일 홍콩에서 대규모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는 장기화되었다.홍콩 정부는 정치와 종교 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7년 이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최종 송환 여부는 홍콩 법원이 결정하겠다고 했다.

반면 홍콩 시민들의 입장은 베이징 당국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고, 만약 중국 체제에 반발하거나 중국에 반대한다면, 베이징 당국이 압력을 넣어서 중국 본토로 송환해 갈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는 홍콩의 자치권과 일국양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평화롭게 진행된 그전의 집회들과 달리 2019년 7월 중순,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물 대포와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그러다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여성이 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아 실명 위기에 처하자 분노한 홍콩 시민들은 8월 12일 오후 홍콩 국제공항을 시위대가 점거하여 공항은 결국 폐쇄됐다. 9월 4일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함으로써 시위의 최초 원인은 제거된 셈이지만, 이후에도 홍콩 시민들은 5대 요구의 수용을 촉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홍콩의 자취권을 유지하고 자유, 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행정장관 직선제 등에 관한 정치 민주화 열망을 강력히 표현했다. 또 이러한 주장이 시대에 걸맞은 진정한 시민들의 목소리임을 강조했다. 더욱이 시위를 앞장서 주도하고 있는 20대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가 SNS 등을 통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새로운 학기를 맞아 매주 월요일 대학들의 동맹휴업 선언이 이어지는 등 변화에 힘을 싣는 이들의 규모는 점점 더 커졌다. 또한, 광둥성 선전에 인민 해방군 무장경찰이 집결해 긴장을 높였으며, 이러한 무력 개입의 위협 속에서도 홍콩 시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며 홍콩 정부를 압박했다. 혼란과 혼돈, 공포가 뒤섞인 홍콩. 이러한 홍콩 시민들의 투쟁은 마치 우리와 다른 듯 같은 것 같다.

▲ 오수빈 기자

미-중 무역전쟁, G2의 시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표방하던 중국은 1978년 개방정책을 시행한 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시작했다. 선전을 중심으로 여러 해안 도시들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입해 현재 미국에 이어 국내총생산(GDP)가 세계 2위 규모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G20(Group of 20)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승격된 것으로, 기존의 G7이 오늘날의 G20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G7은 1973년 1차 오일쇼크(석유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국·영국·프랑스·서독·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이 모인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1975년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G5 정상회의로 승격됐고, 이후 이탈리아(1975년)와 캐나다(1976년)가 참여하면서 G7이 됐다. 러시아는 1991년 구 소련으로 준회원처럼 참여하였는데 1997년 제23차 G7 정상회담에 정식으로 참여하면서 G8로 확대되었다. 그러다 점차 신흥국이 부상하게 되고 2005년 영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브라질·인도·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 신흥 5개국을 포함한 G13이 탄생하였다.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존의 장관급 회의였던 G20이 정상급 회의로 격상됐다.

그런데, 오늘날은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힘이 타국에 비해 압도적인 상황을 빗대어 우스갯소리로 G2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나라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해오고 있다. 바로 무역 전쟁이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러한 무역전쟁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 2018년7월6일 오후 1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00여종에 25%의 관세를 붙였다. 이에 중국은 보복의 의미로 미국이 중국에게 부과한 관세와 동일한 340억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계속 자국의 보호무역을 강조해왔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많았다.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정도를 심화시켜 중국 수입품 3,000억 달러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러한 양국간의 신경전을 기점으로, 두 국가는 아직도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무역전쟁이 대한민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이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인 미국으로서는, 한국에게 반 화웨이(중국의 대규모 전자제품 기업)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선뜻 동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듯 미-중 무역전쟁은 한국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도 충분히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볼 줄 아는 자세를 길러야 할 것이다.

▲ 이진우 기자

스포츠 선수들의 군면제 특혜 정당한가

한국은 휴전국이다. 1950년에 있었던 북한과의 전쟁 이후, 한국은 언제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특정 인원 이상의 군력이 존재해야만 한다. 따라서 한국의 모든 남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1년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 군대에서 복무해야 한다. 그 와중에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한 가지 직업이 있다. 바로 스포츠 선수들이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스포츠선수에 대하여 병역특례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병역 '특례'가 시작된 계기는 스포츠 선수들이 국위선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스포츠 선수 특성상 활동 가능한 시기가 한정적이며, 공백기로 인한 복귀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군 복무 특례가 '특례'를 넘어 '특혜'라는 주장이 사회를 둘러싸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스포츠 선수들의 군면제 특례는 정당한 것일까.지난 2018년,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의 명단이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큰 논란이 일었다. 일부 선수들의 의도적인 군 면제를 위해 실력이 부족하고,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들을 뽑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선수들의 우승을 위해 응원해야 할 팬들이, 대회 조기 탈락을 기원하는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한 논란 속에 대표팀은 일본을 상대로 3대 0 승리를 거두며, 전원 군면제를 달성하였다. 그럼에도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커져만 갔다.사람들은 대표팀 선수들의 선발 과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라는 요구를 하였지만, 대한민국야구협회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대답을 회피하기만 할 뿐이었다.

이렇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을 보면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선수들을 뽑는 데에서부터 문제점이 발생한다. 물론 스포츠 자체를 보면, 매우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 따라서 압도적인 기량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을 뽑는 데에 있어서는 누구도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후, 비슷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선발할 때엔 논란 회피가 불가능하다. 그 선수가 설령 감독 눈에 들어 대표팀에 뽑혔다 할지라도 대중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에 충분한 선수일지라도 말이다. 작년의 아시안게임 사례를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표팀에 뽑힐 때까지만 해도 '황의조'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심한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던 황의조 선수는 뛰어난 기량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기 전까지 감독의 후광을 통해 대표팀에 선발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스포츠 선수들의 군면제 혜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 긍정적인 점이 나름 존재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논란을 몰고 다닌다는 뜻은 그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논란이 비롯된 곳에서도 반드시 문제점이 발견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 민지홍 기자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 다시 살아나는가

에볼라 바이러스란 1995년 봄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강 유역에서 발생한 집단 괴질의 원인균이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혈액, 분비물, 장기나 정액 등의 체액을 통해 사람 사이에서 직접 전파되면서 누구나 감염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 심지어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2만 8천여 명이 넘고, 이 가운데 1만 1천3백여 명이 사망했기에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공포를 주고 있다. 2014년에는 미국의 마지막 에볼라 환자가 퇴원을 하면서 다시 잠잠해지기 시작했고, 이에 다른 국가들도 점차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2019년,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국내에 보도된 바가 없지만, 국외에서는 심각한 이슈이며 국내 또한 안전하다고 확실할 수는 없기에 그 심각성을 알아보았다.

현재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지난 1년간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에는 전쟁이나 분쟁조차 일어나지 않았지만,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 또한, 지난해 8월에 발병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올해 2월 발병 6개월 만에 사망자가 5백 명을 넘고, 사망자는 벌써 2천 명을 넘어 지금까지 2천35명이 숨졌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렇게 크게 번지게 된 이유는 그 증상이 단순 감기로 오해하기 쉬워서,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저 버티는 동안, 에볼라 바이러스는 체내에서 계속 퍼져 나가고 결국, 사람들은 심한 구토와 설사, 심한 내출혈을 겪을 때 즉, 에볼라 바이러스가 자신의 몸을 점령할 때까지 방치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몸을 점령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너무나 악화되어서, 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 그렇다면, 불치병이라고 믿여졌던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료를 할 수 없는 걸까? 많은 사람에게 불치병으로 알려진 에볼라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치료제 4종을 콩고 환자들에게 투약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다. 치료제 4종은 ZMapp(지맵)과 항바이러스제인 remdesivir(렘데시비르), REGNEB3, mAb114이 있다. 이 치료제를 쓰고 나서, 사망률은 49%로 낮추어졌으며, 생존율은 94%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불치병인 줄만 알았던 에볼라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무장반군의 활동으로 주민등의 치안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치료제가 신속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주민들은 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복용하지 못하게 되고, 나날이 사망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증세를 막기 위해 각국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 주민들이 에볼라 감염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예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하면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의식과 공포를 상기시키고 있다. 자세한 캠페인의 종류는 에볼라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 등과 접촉 금지 캠페인, 에볼라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으로 오염된 물건과 접촉 금지 캠페인, 감염 동물 사체 또는 고기 접촉 금지 캠페인 등 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의 국민들과 세계의 건강을 위해 우리도 캠페인에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 ▲ 임지예 기자

우리나라의 교육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나라 교육의 주요 목적은 '대학 진학'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의 대부분은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기 위해 학원에 다니고, 높은 내신 성적을 받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한다. 이런 사회적 인식 때문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전 법무부 장관 조국 딸의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비난 여론이 들끓고, 각종 대학에서는 집회가 열린 점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목표인 것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부는 그에 맞는 교육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계속 바뀌고 서로 모순되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하였다. 교육 불공정 해소를 위해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던 후 1년 만에 다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시 확대' 발언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여론을 살펴보겠다.

찬성 측은 입시에서만큼은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불공정한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을 비판하였다. 또한, 내신 성적이 좋지 못한 고등학생과 재수생에게는 정시만이 방법이기에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편, 반대 측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역행한다고 말한다.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은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사회 · 경제적 지위에 큰 영향을 받으며 사교육 비율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꼬집는다. 반대 측은 정시 확대가 아닌 입시 경쟁 교육 중단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계속해서 제기되는 입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정시 확대'는 과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특권 대물림의 중단'이다. 정시 확대 정책은 특권 대물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2018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월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수능을 압도적으로 선호한다. 또한, 2015년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른 수능 평균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점수도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런 조사 및 연구 결과는 수능이 특정 계층에게 유리한 전형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정부의 정시 확대 발언 이후에는 사교육 업체의 주가가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사교육 업체의 주가가 증가한 것은 물론 학생들의 사교육비도 증가하였다. 통계청의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2.1만 원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우리나라 교육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줄이는 것이다. 2018년 유니세프의 '국가별 학업 스트레스 설문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50.5%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학생들은 '성취도'에만 집착하는 교육 시스템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시험은 자신의 능력을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마지막 기회이다. 한 사람의 노력이 시험 성적만으로 평가받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 미국의 대학 입시에서는 고교 생활이 대학 진학을 위한 학력을 준비하는 수단으로 활용됨을 파악하고 SAT를 지식과 기능을 획득하면서 종합적으로 자신의 전공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역할로서 강조한다. SAT와 같은 학력 시험은 경쟁보다는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수료했다는 적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이용된다. 프랑스의 대학 입시제도는 학생들 간의 서열을 매기지 않는 절대 평가제이며 특정 학과를 제외하고는 인원 제한이 없고,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이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에서 모든 대학이 같은 가치를 인정받으며, 어느 대학에 입학했는지보다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학위나 자격증을 획득했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교육은 올바른 사회의식을 가진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다. 대학의 존재 이유 역시 더 깊이 있는 지식 습득을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소설을 읽을 때도 평가원에서 해석한 것만이 답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 교육은 사회를 퇴보시킨다.

우리나라에서도 학생이 성적만이 아닌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평가를 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입시 전쟁' 속에서 학생들을 구출해야 한다. 정시 확대, 고교서열화 해결 등의 정책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육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 이지우 기자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한다, 악성 댓글의 치명적인 문제점

지난 10월 14일,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본인의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대중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사건은 설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추측되고 있는 '악성 댓글'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했다. 그녀는 평소 극심한 악성 댓글에 시달리며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였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렇듯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연예인들을 괴롭히는 '악성 댓글'의 심각성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

악성 댓글은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올린 글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의미한다.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악성 댓글은 현재 법적으로 통제되고 있지만, 그 통제의 정도는 결코 강하다 할 수 없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 즉 '악플러들'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성을 악용해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에게 감정적인 인신공격을 가한다. 악성 댓글의 주 내용을 분석해보았을 때, 우리는 이 댓글들이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지나치게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악성 댓글과 루머가 더욱 과장되는 것에는 언론의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옐로 저널리즘', 즉 황색 보도는 선정적이고 허위적인 보도를 통해 네티즌들의 마녀사냥을 유도하며 극단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황색 보도는 '사실'보다는 '흥미'를 위주로 한 보도를 통해 기사를 접한 대중들의 원시적인 본능을 자극하며 악성 댓글이 사회적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돕는다.

악성 댓글은 해당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을 고스란히 안겨주는 범죄 행위이다. 얼마 전 우리의 곁을 떠난 설리처럼, 악성 댓글과 루머에 고통받다 세상을 떠난 연예인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은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고 있다. 악성 댓글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을 비롯한 집단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하고, 더 확장된 범위에서 보았을 때 국제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렇듯 계속되고 있는 악성 댓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철저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대중들의 움직임은 현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2008년, 기존의 명예훼손 법안보다 더 구체적인 '사이버모욕죄'라는 새로운 내용의 법률안이 신설되기도 했다.

또한, 그해 7월에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며, 이 의견을 바탕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시범으로 시행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악성 댓글의 감소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악성 댓글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처벌은 흐지부지되었고, 올해 설리의 죽음으로 인해 대중들 사이에서 다시금 화제로 떠올랐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측은 설리의 죽음 이후 근거 없는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목적에서 초강경 대응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을 찾아 그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기관에 의뢰하고 법적 조치를 비롯한 질의와 청원 역시 이어가겠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또한, 지난 10월 27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차별적, 혐오적 표현의 게시물을 차단하고 온라인 댓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설리법'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법안은 댓글 작성 시, 아이디 전체와 IP를 공개해 신중함과 책임감을 가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용자 스스로도 가짜 뉴스나 허위 사실을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 법안은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간접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이들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인터넷 메인 홈에 올라와 있는 단독 기사들과 실시간 검색어들은, 전부 대중들의 시선을 잡아끌 수 있을 만큼 자극적이고 과장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 중 오로지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는 것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거짓을 진실이라 믿게 되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분간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신중히 생각하고, 그 말 한마디로 인해 누군가의 결말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순간의 흥미를 위해 그 한 사람을 죽음의 벼랑으로 몰고 가는 잔인한 범죄 행위가 다시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최수민 기자

Everyone has inside of him
a piece of news good.
The good news is that
you don't know
how great you can be !
How much you can love !
What you can accomplish !
And what your potential is !

-Anne Frank-

함께 뜻을 이룰 17기 부원을 모집합니다.

뜨락